

대진대 대체의학 무료강의

8월7일 오후3시 비가내린다. 짧은 기간의 홍보, 어떠한 매체로서의 홍보가 없었던 탓인지 조금은 단조롭게 시작한 대체의학 자연치유 강의가 시작되었다.

침구학, 민간요법, 경락, 자연치유의 다스림 시간이 흐름수록 흥미진진하고 오장육부와 감성의 관계, 태어난 날과 시간, 화,노,사,비,공 소문의 음양 대상론,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로 시작한 강의로 가는 줄 모른 시간 아쉬움을 뒤로 할 정도로 흥겹고 즐거웠다.

물고 대답하는 형식의 강의는 내 자신이 정산치료 받은 것처럼 후련했고 경락과 심리관계, 바이올리나와 육경, 색에 따른 감성, 수태를 폐경 등.

짧은 시간에 다 이해 할 수는 없지만 큰 양식이 된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된다면 하루하루 무의미한 시간 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랑과 열정, 뜨거운 사랑과 예술적인 감성, 성숙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도 주어진 셈이다.

예술, 영감, 창조성, 천재력이 사랑, 가족,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많은 기능으로 경쾌함을 줄 수 있는 것 같다.

이제들이 다시 주어진다 포천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녀 노소 함께 나누는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보고 듣고 배우고 싶다. 기회를 만들어 주신 대진대학교 대학원 구득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장



지난 8월7일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대체의학 무료강의 모습.

119신고자 상황처리 문자서비스 제공

포천소방서는 특수시책으로 지난 2007년 7월 한 달동안 119신고자 상대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를 신설해 시행했다.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는 119전화로 신고한 내용에 대해 소방대원의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일 반전화통을 통해 알려주는 제도로서 종전에 신고한 후의 상황을 몰라 답답해하던 신고자의 마음을 가장 잘

배려한 행정발전의 좋은 예라고 평가 받고 있다.

시행방법으로는 화재신고, 구조신고, 구급신고, 기타 재난신고 등으로 나누는데 각 신고내용에 따라 처음 출동단계 도착단계 완료단계로 구분하여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고자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상황을 자세히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포천소방서에서는 현행 시행 중인 "119신고자 상황처리 통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포천예총 사무국장 임갑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총 위해 노력하겠다”

“제3대 예총회장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취임식 당일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예총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2일 취임한 포천예총 임갑연(47·사진) 사무국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여성으로서 외부적으로 활발한 활동보다는 내부에서 섬세하게 예총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포천시 문화예술 봉사단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총 산하 5개 지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그동안 각 지부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해 예총이 끈끈하게 묶여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독거노인 돌보미 등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인맥을 포천시 문화예술 홍보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화교 어머니회와 교류도 그래서 중요하다.

포천지역에서는 문화예술 행사(전시,공연)를 벌여도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 행사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행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 국장은 각 협회 사무국장의 도움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취임 당시보다는 많이 좋아진 각 협회와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노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은 지난해까지 1년에 1회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회계를 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정 공무원들의 자리가동으로 모두 처음 맡은 새내기라는 생각으로 서로 도우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동남중학교 어머니회장, 소리여울 기타동아리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으로 매일 5명을 돌봐 드렸던 사회봉사활동도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예총 사무국의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다.

홍보활동에 대해 현수막 및 장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공연을 통해 관객을 모아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 국장은 “포천예총이 살아있는 예술단체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날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에세이

아픔도 흐르는 물과 함께 떠나길

특이한 신문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슈퍼 옥수수 농장에 산재해 습격으로 초비상 사태라고 한다. 슈퍼 옥수수 연구목적은 북한주민의 식량해결책으로 경북대학의 연구팀과 농장주의 노력의 장인대 산재지들의 무자비한 습격에 황당할 수 밖에...

그 대책으로 호랑이 호포소리를 녹음해서 틀어줬더니 인근 농가의 어미 소들이 유산을 했다니 다음 방도로 호랑이 번을 모아 옥수수 농장에 퍼 보아도 실패한 답이 없었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산재지들도 살아남기 위해 식량전쟁에 몰입해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북한풍포의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뜨거운 동포애에 가슴 저리다.

지금 뜨거운 열도에서 인질로 잡힌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축각을 다루는 위험 속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경을 헤매 생각을 하면 한숨밖에 나오는 게 없다. 정

이 많은 민족이라 그 위험지구에 누구를 위한 봉사라고 가까운 젊은 목숨을 잃게 만드나? 우리 모두가 뼈아픈 고통을 남겨주고 있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것 같다. 사랑과 봉사는 내 마음의 밑음만 가지고 무방비로 떠난 어리석음은 해결할 수 없는 속죄만 남겨 온 국민에게 열병을 없애 만들었다.

원망해도 소용없는 노릇이지만 작은 동자를 애써 지키는 어미 새의 팔딱이는 가슴처럼 현실이 무겁고 두렵다. 순간의 이변이 생겨 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다.

답답한 마음에 매일 저녁때면 한내친 번을 걸어본다. 강만큼이나 넓은 천에서 시원한 바람이 좋았는데 며칠전 내린 폭우로 밀려온 쓰레기가 기막힌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무심히 버린 생활속의 쓰레기. 한 사람이 한번만 버려도 우리의 식수인 한탄강을 쓰레기로

덮어 버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천 하늘에 여객기가 뜬다면 전혀 맞지 않는 그림인 것 같다. 시민이 원하는 건 동두천까지 개통된 전철노선이 한없이 부러운 거지. 하늘을 나는 여객기는 생각밖의 일인 것도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부럽다고 한다.

시민의 교통난을 해결해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전철이 마냥 부럽다고. 비 내린 뒤 산천의 아름다움이 더 빛을 내던 옛날이 그리운 건 모든 이들의 마음도 같은 거란 생각이 든다. 낯시를 즐기는 만큼 가져온 물건들도 잘 챙겨서 한내친 주변을 깨끗하게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다.



윤순옥 포천예총간담회회원

캄보디아 여행기

찬란한 유산 앙코르와트를 다녀와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중학생인 두 딸과 함께 앙코르와트 여행을 다녀왔다. 여동 속에서 반짝이는 우리 조각이 어느 도시인가 궁금해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여행목적지인 캄보디아 씨엠텔에 도착했다.

무엇과 다름없이 8월 캄보디아의 여정이 그리 녹록치만은 있었다. 앙코르와트 유적지는 앙코르와트 반데스레이 등 여러 개의 사원과 건축물들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물과 건물잔해의 부조물들이 인상적이다.

또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아름다운 고대문명이 부조되어있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었다.

백백한 일경만에도 산 한번 오르기 위해 갖은 아양으로 달려서 같이 데리고 오르면 그 아이들이 신에 대한 예의로서 앙코르와트

성전을 네 발로 걸어서 오르는 뒷모습을 보며 힘들다고 피 부리지 않는 성숙함을 느낄 수 있어서 여행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정서적 여유를 심어준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곳저곳 걸 어다니면서 구석구석 둘러보는 일정이 우리 모두를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장엄함과 신비스러움이 아닐까 한다.

그 옛날에 손작업 해서 벽돌로 끼워 맞춰 건축물이 일일이 돌에 조각을 해서 벽화를 만든 앙코르 통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그 정교함에 앞으로 이런 건축물은 만나오지 않을까 싶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영화의 한 장면

보다 훨씬 더 멋지고 웅장하고 마치 신들만이 살았었던 전설이 묻어나는 것 같은 기적에 오래 밤을 못자는 충격이었다.

건설하는 데 20만여명 이상의 동원되고 37년 이상이나 계속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 많은 건축물들과 정교하고도 방대한 조경은 캄보디아 옛 선인들의 놀라운 건축기술과 정교한 조화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돌보지 못한 그 후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다. 70년대 내전으로 얼룩진 사회환경과 낙후된 경제환경 속에서 1달러를 의지하며 물건을 파는 아이들과 거대한 튼튼한 호수 위의 수많은 수상촌 사람들...

오랜 내전으로 많이 훼손되었고 이제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몇 십년이 걸려야 끝난다니 우리나라의 성격과는 많이 대조적인 듯 싶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천혜의 얼굴을 가진 캄보디아와 그들의 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여행하면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미래를 생각해보는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 하루 2천 원도 안 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며 나는 우리나라에서 나의 아이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 스스로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종예 주부명예기자단 부주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의 새로운 체험을 위해 캄보디아여행을 다녀온 이종예 주부명예기자단 부주와 윤미숙 주부명예기자 가족들이 기념촬영.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7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 필요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즐겁고 신나는 휴가를 보내는 우리를 질투라도 하듯 지루한 주말 같은 비가 하루 하루를 그날 보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서도 바다로 계속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바쁘고 빠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잠시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약간의 여유를 통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휴식의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즈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야구영웅 헨크 에런의 755개의 홈런대기록을 베리본즈가 드디어 타이기록을 세우며 세계기록의 홈런을 하루 하루 새롭게 갱신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모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의 홈런을 쳐 낼 것인가? 우리는 사투 기대가 되고 흥분되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록과 스타의 탄생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지는 별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

이 세계적인 그룹에서 성장하고 성공하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와 준비 그리고 인내가 필요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메이저 리거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든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찬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팬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메이저 리거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새로운 기록에 도전하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땀 흘리는 모든 선수들과 가족들에게 찬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웰빙 부사의(不意) 신뢰(信賴) 26

兵·食·信 가운데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될 것은 '信'

병(兵)과 식(食)과 신(信) 가운데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버릴 것은 '식'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신'이란 말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병은 그렇다 치고 왜 식까지 버리라고 했을까? 먹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이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신(信)은 실(實)과 통하기 때문이다. 옛날 분들을 이것을 깨닫고 보았던 것이다. '신' 속에 '먹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것처럼 알곡이 꼭 들어차야 열매가 열린다. 알곡이 차지 않으면 쭈렁이가 된다. 쭈렁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알곡이 꼭 들어차야 열매가 되어야 한다. 알곡이 꼭 들어차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먹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믿음을 말하는 이유이고 믿음을 제일의 덕목(德目)으로 삼는 이유이다.

알곡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받아 가면서 낫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햇빛이 모자라도 안 되고 물이 모자라도 안 되고 영양분이 모자라도 안 된다.

또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땀 흘리며 차곡차곡 열심히 쌓아올리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계을 피우며 빈둥거리면 쭈렁이가 되는 것이다. 쭈렁이가 될 것인가? 알곡이 될 것인가? 스스로 물어 볼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이다. 진실성(眞實性)이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에 일관성이 있을 때 믿는다는 것이다. 언론(言論)도 마찬가지이다. 신문(新聞)과 방송(放送)도 마찬가지이다. 그 매체(媒體)가 진실(truth)을 말 하고 일관성(consistency)이 있을 때 믿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 결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받아 가면서 낫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햇빛이 모자라도 안 되고 물이 모자라도 안 되고 영양분이 모자라도 안 된다.

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짓말해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신뢰(信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명의 굴레를 벗어나 믿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측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眞實)을 말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리라는 징후(徵候)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한 입으로 두 말 해서서는 안 된다. 어제는 저렇고 오늘은 이렇고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의논박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색안경을 쓰고 보아서도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勇氣)와 지혜(智慧)를 가져야 한다. 일급급 쓰는 담나귀 귀 하는 고사를 되 새겨 봐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알아듣기 바란다.



이규연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장

탐방 @ 하현목장

쾌적하고 효율적인 우사환경 개선 노력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외우며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젓소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 온데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보이고 있고 포천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때보다 사양 관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듯 가장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목장의 생산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우사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식수와 사료를 급여하며 관심 있게 관찰하여 번식에 주력할 중요한 시기이다.

유난히 날씨가 훑은 이번 여름, 사양 관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포천시 자작동에 위치한 하현목장(대표 김용집 윤순자)을 찾았다.

하현목장 김용집 대표는 31년 전 자작리에 위치한 목장에서 목부로 일을 하면서 중매로 윤순자 지부장을 만나 결혼하여 낱말을 낳고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큰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유우조합 7367번 젓소 5마리로 조합원이 되었다.

를 받아내야만 했고 기계가 들어가 작업할 수 없어서 손수 힘들게 일을 했다. 7년 전 김용집 대표가 오토바이사고로 크게 다쳐 아들은 다년전 직장을 그만두고 하현목장 일을 돕게 되었다. 하현목장은 현재 착유소 16두, 건우소 4두, 후보소 7두로 총 27두를 사육하고 있다. 사양으로는 서울유우조합사료, 의양TMR 배합사료, 건초를 급여하며 요즘은 옥수수를 먹고 있다.

윤 지부장은 집 앞 왕방산 줄기를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하며 건강을 유

지하고 독학으로 글을 배워 책을 자주 읽고 화염사에서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외우며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넓은 목장부지에서 최신 기계시설로 낙농후계자인 아들이 결혼하여 며느리와 함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길 바라며 오늘도 탐방을 즐기고 있다.

이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chms8523@hanmail.net



매일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외우며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순자 지부장.